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미중 갈등 우려에도 실적 시즌 기대감 속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5일(수) 미 증시는 미중 갈등 우려, 섰다운 장기화 우려 속 대형 은행 호실적 발표, 연준 양적 긴축 종료 및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AI 산업 모멘텀 기대감 등 약재와 호재가 겹친 결과 장중 변동성 확대됨에 따라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 (다우 -0.04%, S&P500 +0.40%, 나스닥 +0.66%)

미중 무역 갈등, 섰다운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에도 미 증시는 3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연준 양적 긴축 종료 예고 등 전반적으로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국면이 지속 중. 물론,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관세 부과 방침, 미중 상호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 검토 등 최근 연이은 미중 갈등 뉴스플로우는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요인. 실제로, 특별한 뉴스가 부재했음에도 전일 S&P500 지수는 장중 고가(+1.20%)와 저가(-0.48%) 간 큰 폭으로 등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연출

그럼에도, 최근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시사하는 트럼프 발언("중국을 도울 의도이며 해치지 않을 것")과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 확대 의도 일축, APEC에서의 미중 정상 회담 가능성 시사 등 전일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염두에 둘 필요. 즉,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양국의 강공 모드는 10월 중 단기적으로 증시 노이즈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중 관세 유예 만료 시일(11월 10일)을 앞둔 APEC 정상회의(10월 말)를 기점으로 미중 간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한편, 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끄는 두 축인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산업 모멘텀도 여전히 지속되는 흐름. 전일 고용 하방 위험 증가 속 파월 연준의장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발언에 이어 마이런 이사 또한 이 날 미중 간 긴장 고조 속 추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시장 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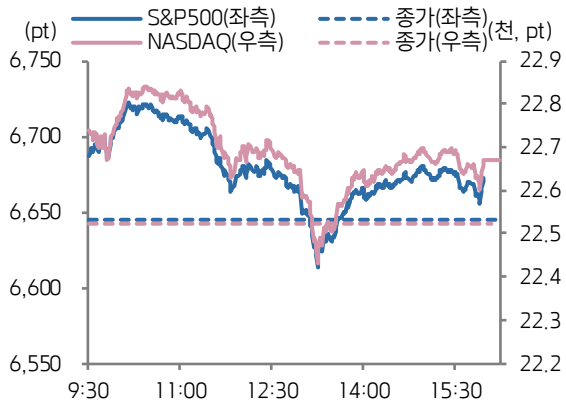
AI 모멘텀 측면에서는 ASML이 AI 투자 붐에 3분기 호실적을 발표(3분기 신규 주문액 54억 유로, YoY 2배 이상 상승)함과 동시에 내년 매출액 또한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가이드언스를 발표하며 AI 모멘텀 지속.

전일 국내 증시는 미중 갈등 불안감에도 파월 연준의장의 양적 긴축 종료 예고 속 유동성 공급 기대감, 대형 반도체와 더불어 원전, 전력기기 등 산업재, 로봇 테마 등이 강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상승 온기에 대한 확산이 여러 업종에 걸쳐 진행된 결과 양 지수는 상승 마감 (코스피 +2.91%, 코스닥 +1.98%)

금일 국내 증시도 AI 산업 확장 기대감 지속되는 가운데 AMD(+9.4%), 브로드컴(+2.1%) 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한 미 증시를 반영하며 반도체를 필두로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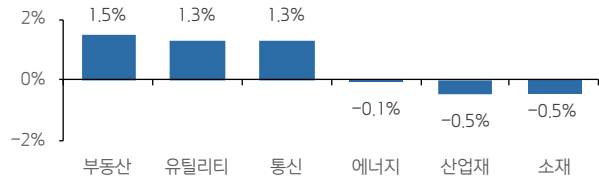
한편, 전일 국내 증시가 재차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최근 고객 예약금 또한 80.1조 원(10월 13일 기준)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 기록.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세 속 외국인 매수세 지속되는 가운데 예약금 증가에 기반한 유동성 또한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당분간 뒷받침할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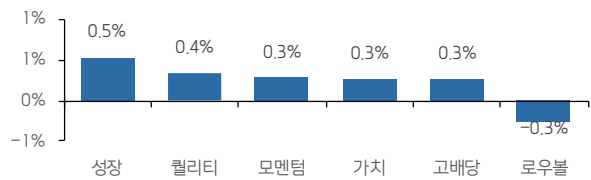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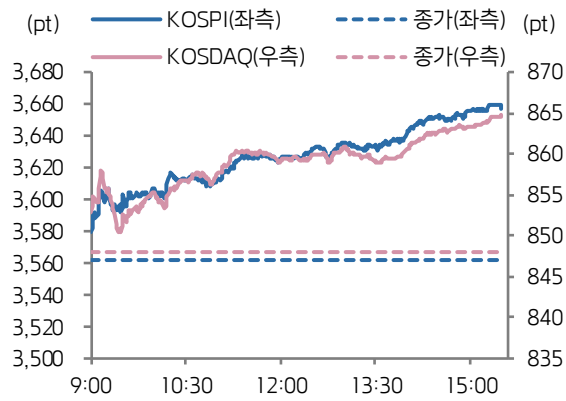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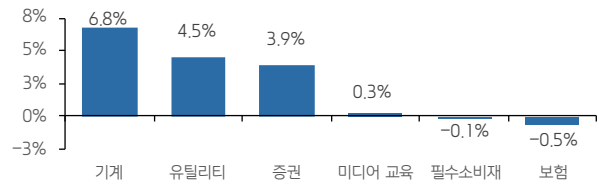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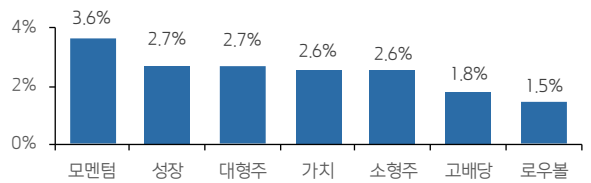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49.34	+0.63%	-0.08%	GM	57.80	+1.14%	+9.41%
마이크로소프트	513.43	-0.03%	+22.48%	일라이릴리	826.57	+1.75%	+7.71%
알파벳	251.03	+2.27%	+33.04%	월마트	109.03	+1.7%	+21.58%
메타	717.55	+1.26%	+22.84%	JP모건	305.69	+1.2%	+30.22%
아마존	215.57	-0.38%	-1.74%	엑손모빌	111.61	-0.61%	+6.63%
테슬라	435.15	+1.38%	+7.75%	세브론	152.11	-0.18%	+8.67%
엔비디아	179.83	-0.11%	+33.94%	제너럴일렉트릭	109.03	+1.7%	+21.6%
브로드컴	351.33	+2.09%	+52.62%	캐터필러	534.05	+1.25%	+49.01%
AMD	238.60	+9.4%	+97.53%	보잉	214.00	-0.14%	+20.9%
마이크론	191.94	+2.61%	+128.72%	넥스트에라	85.79	+1.4%	+22.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657.28	+2.68%	+52.42%	USD/KRW	1,422.60	-0.42%	-3.38%
코스피200	510.55	+2.75%	+60.64%	달러 지수	98.69	-0.36%	-9.03%
코스닥	864.72	+1.98%	+27.5%	EUR/USD	1.16	+0.34%	+12.49%
코스닥150	1,427.80	+1.26%	+26.38%	USD/CNH	7.13	-0.15%	-2.84%
S&P500	6,671.06	+0.4%	+13.42%	USD/JPY	151.05	-0.52%	-3.91%
NASDAQ	22,670.08	+0.66%	+17.4%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6,253.31	-0.04%	+8.72%	국고채 3년	2.522	-1bp	-7.3bp
VIX	20.64	-0.82%	+18.96%	국고채 10년	2.859	-0.2bp	-1.2bp
러셀2000	2,519.75	+0.97%	+12.99%	미국 국채 2년	3.497	+1.7bp	-74.4bp
필라. 반도체	6,767.06	+2.99%	+35.89%	미국 국채 10년	4.028	-0.4bp	-54.1bp
다우 운송	15,496.56	+0%	-2.51%	미국 국채 30년	4.625	-0.7bp	-15.6bp
상해종합	3,912.21	+1.22%	+16.72%	독일 국채 10년	2.571	-3.9bp	+20.4bp
항생 H	9,250.91	+1.89%	+26.9%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2,605.43	+0.7%	+5.72%	WTI	58.27	-0.73%	-14.93%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1.91	-0.77%	-17.06%
Eurostoxx50	5,605.03	+0.95%	+14.48%	금	4,201.60	+0.92%	+51.85%
MSCI 전세계 지수	978.32	-0.28%	+16.28%	은	51.38	+1.49%	+75.7%
MSCI DM 지수	4,277.74	-0.19%	+15.37%	구리	501.45	-0.17%	+24.54%
MSCI EM 지수	1,338.98	-1.06%	+24.5%	BDI	2,022.00	-5.69%	+102.81%
MSCI 한국 ETF	85.17	+3%	+67.36%	옥수수	416.75	+0.91%	-6.08%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498.75	-0.3%	-16.67%
비트코인	111,177.01	-1.66%	+18.63%	대두	1,006.50	+0%	-1.83%
이더리움	3,963.20	-3.81%	+18.43%	커피	394.90	-1.19%	+36.4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